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

성경말씀: 시42:1-11

살다보면 이런 저런 병에 걸린다. 현대병이라 불리는 병이 있다. 우울증, 선진국의 특징: 10-20% 매해 20%씩 성장, 이 세상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약: 우울증 치료제, 세로토닌 등, 여러 종류의 신약 Depression은 감정 관련 질병 중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세력이 확장되고 있다.

나도 50세가 될 때까지는 우울증을 모르고 살았다. 역경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며 살았다.

5년 전, 2011년 400주년 기념판 완성 출간 후 가을의 어느 날부터 감당할 수 없는 우울증 갑작스레 미래에 대한 걱정, 일어날 수가 없음(무기력). 아내와 손을 잡고 주차장, 6개월 치료 이후로도 가을에 수면 장애가 온다. 올해도 마찬가지. 그러나 여러 차례 겪으니 약 먹고 그러려니 우울증은 (1) 하려고 하는 일이 안 돼서 낙담하거나 좌절할 때 생긴다. (2) 배우자, 친구, 가족, 돈, 직업 상실, (3) 배신

고통과 좌절은 누구나 당한다. 부부 간의 갈등, 이혼, 상처 입은 자녀들,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 질병, 남편이 쓰러짐, 암 선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출산 후 우울증, 결혼/직업 증후군

1948년 건국 이래 최대 위기, 북핵, 김정은의 막가파 행동, 종북주의자들의 선동

이런 와중에 최순실 사건, 대통령의 업무와 사상에 관여, 비리

대통령과 나라가 악한 영에 의해 조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비극,

은 국민은 비통함을 느낀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300여 명), 이번에 최대민 목사라는 사이비 교주, 기독교인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신해서 먼저 온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대통령 자신은 어떨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부영이 바위 투신자살, 친인척 뇌물 비리, 수치와 자괴감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번 사건을 빌미로 종북 세력의 선동, 북한의 전쟁, 대통령의 잘잘못은 법의 심판에 두자.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간구해야 한다.

지난 70년간, 한강의 기적을 이루려 주심, 이번에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교회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

좌절, 낙심, 죽고 싶음,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온다. 성경에도 이런 사례가 많다.

1. 모세의 이집트 탈출, 백성의 불평. 이집트로 돌아가자, 능력의 한계(민11:14-15)

2. 여자에게서 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자, 침례자 요한, 왕국의 도래, 백성의 비회개, 감옥 제자들을 보냄,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눅7:19-23), 실족함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들처럼 우울증에서 예외가 아니다(고전10:13). 스펠전(통풍, 우울증)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 실패, 낙심, 좌절, 우울증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

시편42편

시편42편과 43편은 낙담 속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이 구출받는 모습을 그린다.

42:5, 11, 43:5 동일 저자, 아마도 한 시편, 후에 둘로 나뉘

저자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4, 6절 등을 통해 보면 추방당해 외로이 살고 있는 사람

학자들은 사울의 추격을 받고 유다에서 쫓겨난 다윗(시63편 근거), 레위 사람 음악 지도자 고라의 아들들: 다윗 당시 성소에서 섬기는 문지기들(대상9:19), 아마도 노래도 했음(대상26:1-19)

시편: 하나님께 대한 헌신하는 경건한 사람의 사랑의 감정을 보여 주는 거울, 특히 42편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열망이 두려움과 소망과 기쁨과 슬픔 속에서 열렬하게 드러난다.

매튜 헨리는 시편, 특히 42편에서 감정과 믿음의 대립이 잘 표현되고 있다, 감정(두려움, 불신 등) 성도 역시 사람이기에 사는 동안 감정과 믿음이 속에서 갈등을 보인다.

1.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 그분과의 교제 갈망(1-2): 믿음

2. 지금의 상황은 심히 어둡고 특히 과거를 회상하니 더욱 더 그렇다(3-4): 감정

3. 믿음이 감정을 누름(5-6), 4. 또 자기의 현실(7): 감정,

5. 믿음의 반응(8), 6. 현실의 감정(9-10), 7. 믿음(11), 성도라도 이런 사이클 정상
하나님을 갈망함(1-5)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
예수님의 생명(life)이 들어가면 그의 삶(life)이 바뀌게 된다.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구원받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표적: 방언,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우리교회 비전1)

갓 태어난 아기가 자동으로 젖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말씀, 기도, 예배 형식 등은 몰라도
성도는 죽을 때까지 거룩한 갈망의 사람이다.

1-2절을 보자. 중동 지방의 건기에 물을 찾아 나서는 사슴을 상상해 보라. 오직 눈에는 물만 보인다.
심지어 오아시스 신기루가 보인다. 물을 쫓다가 죽는 사슴이 많다. 시편 기자는 성도의 이런 거룩한
갈망을 시로 표현하고 있다. pant는 헉헉대다, 얼마나 애절한가! 극도로 취약한 자의 갈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 이유: 그의 상황(3),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희귀 질병, 암, 직장, 배신, 자식들, 진화론
그래서 밤낮으로 눈물이 쏟아진다(3): 주님을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땀과 고통, 오해

“하나님이 말씀을 보존해 주신다.” 너무 당연한 말, 그것을 믿으니 “미쳤다고 한다.” 울음이 있는가?

“휘장이 찢어졌으니 이제는 신약 교회를 해야 한다.” 너무 당연한 일, “우리와 다르므로 이단이 아니냐!”
지금 저자는 이방인들의 땅에 추방된 상태(6): 이스라엘 북쪽의 어느 한 구석, 이방인들의 저주

“유대인이나? 아브라함의 씨냐? 네 하나님이 정말 있느냐?” 이들의 신은 보이는 우상, 저자는 없음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즉시 나타나지 않음. 그러므로 날마다 괴롬을 당함

이런 상태에서 과거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예배드리던 때를 기억하니 더 슬프다(4): 이스라엘의 남자들
일 년에 세 차례, 성막이 있는 데로 가서 경배함, 인생의 가장 큰 기쁨(시84:1, 2, 10; 122:1)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더욱 더 눈물이 쏟아오르고 낙심이 되며 우울증이 생긴다.

4절의 거룩한 날, 기쁨과 찬양의 소리,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앞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요4:24,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를 그리워하는가? 온 가족, 단정한 옷, 깨끗한 장소, 음악, 말씀, 교제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있는가? 이것이 사랑침례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갈망이기를 바란다.

기자의 소망과 위로(5): 낙담과 좌절이 성도에게도 있지만 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정신을 차리고 밑이 아니라 위를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5): 1. 창조주 하나님, 2.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다윗의 하나님, 시
18:25-27), 3.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4. 부활하시는 하나님, 5.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6. 웃으며 바라보시는 하나님(5): 얼굴의 도우심,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는 여전히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5): 성숙한 성도의 지표

하소연하면서 위안을 얻는다(6-11)

성도의 의무(6):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속 중심에 모시고 다닌다.

일하다가도 잠만 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가족들, 성도들과 예배와 교회가 그림자.

주님의 위로와 성도의 찬송과 기도(8): 인자하심을 명령하심(lovingkindness), 찬송과 기도를 드린다.

찬송가는 거의 다 주님께 대한 헌신, 사랑, 그래서 자주 불러야 한다.

눅18:1-8,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들어 주신다.

기도의 내용(8-9): 하나님께 불평이 아니라 하소연하라(있는 대로 간곡히 호소하라).

성경 대적자들, 우리와 우리 사역을 방해하고 미워하는 자들: 주님께 하소연한다.

길지 않아도 된다. “주여, 저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합당하게 처리해 주십시오”(행4:29-30)

마귀의 국가 교란, 질병, 수술, 위기, 실패, 죄절, 주께 가져가 호소하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반석(9)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자(11). 그리고 여전히 찬양하자.

결론: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다. 11절